

블라인드 평가 대비 객관적으로 돋보이게 기재

올해부터 바뀌는 학생부 작성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 기록을 보완하고, 원격수업에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군을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과 병행해 2020 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원격수업 내용 등 일부 항목이 보완·수정돼 적용된다. 지난해와 같이 기재 금지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됐고,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 마련·보완·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기록 기준이 세분화됐다. 지필과 수행평가,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세특)은 3단계까지 동일하지만 창의적체험활동(창체)와 행동특성 및 종합

원격수업 평가 교과군 확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추가 수업 상황 보면서 충실하게

의견(행특)은 3단계부터 구분을 뒀다. 창체는 3단계부터 동아리와 진로 등은 원격수업 내용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고 행특은 정량기록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다. 1~2.5단계에서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쓴다.

기재범위도 확대했다. 원격수업 내용을 등교수업 때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수업의 범위,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자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필수 기재 대상 과목을 늘렸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를 전 교과로 확대하였다.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학적사항', 수상경력

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셀프 학생부와 관련한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에 활용 가능한 자료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 등이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더 꼼꼼히 확인해야 수상 경력은 지난해와 거의 유사하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고 2~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때 수상 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하고,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

부터 상급학교 진학 때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격증과 인증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창체 활동에서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제공하지 않는다. 세특에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도 제공하지 않는다. 독서활동상황의 경우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읽은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고, 2024년 대입부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은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특히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보면서 학생부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해 학교의 후향효과보다는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육부, 한글 진단 강화 '미해독' 학생 증가 막기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한글 미해독'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글 진단을 강화한다.

1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한글책임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매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글 해독 수준 진단이 올해는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웹 기반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한글 해독 수준을 진단해왔다.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진단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1학기 말에서 2학기 초 사이에 전체 학생 대상으로 1차 한글 해독 수준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2학기에는 '한글한마당'과 '기초국어 튜트' 등 한글교육 지원자료를 활용한 맞춤 학습을 진행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0 우수 어린이급식소 시상

동신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희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020년 우수 어린이급식소 10곳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위생·안전·영양 관리 체크리스트 점수가 높은 시설을 우수 어린이급식소로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시상식 대신 우수어린이급식소 현판과 지원 물품을 방문·지급했다.

노희경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소 급식환경의 위생·영양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강대, 성과 확산 포럼

등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교직원,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지난 한 해 함께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DU-창의융합형 미래 직업인 양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등강대 혁신지원사업단(단장 함순아)은 지난 29일 교내 본관 5층 나이트게일홀에서 '2020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언택트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학교 구성원, 타 대학 등과 교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ZOOM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됐다.

혁신지원사업단의 사업 개요 설명에 이어 ▲교수 혁신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원 ▲창업지원단 ▲취창업지원센터 ▲국제교류원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 Relation-UP과 글로벌 EDU-CAR 등 영역별 결과물을 소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재난 인문학 연구 어떻게...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온·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단장 강희숙)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인류가 재난이라는 경험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왔는지, 또 재난으로 인한 갖가지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사유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이 주최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재난 경험을 기억, 인식, 서사, 치유라는 키워드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인문학이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하며 재난인문학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학술대회는 "재난인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동아시아-한·중·일 3국뿐 아니라 호주,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5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세미나실(본관 4105호실)에서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간호학과, 예비대학생 학교생활 돕기 '눈길'



광주대 간호학과가 최근 온라인(ZOOM)을 통해 2021년 수시합격생의 대학 및 학과 생활 설계를 돕는 '슬기로운 대학생활 마중물'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학생회 학생들이 사회를 보며 예비 신입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간호학과에서 수시합격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광주대에 따르면 간호학과는 총 2회에 걸쳐 학교 백인관 간호학과 실습센터에서 2021년 수시합격생의 대학 및 학과 생활 설계를 돕는 '슬기로운 대학생활 마중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ZOOM)으로 실시된

교수·선배 학생들 참여 '슬기로운 대학생활 마중물 프로그램' 운영

이번 프로그램에는 2021년 수시합격생 142명이 참여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 마중물'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학생회 등 재학생 20명과 병원간호사·보건직공무원·소방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학과 교수 등이 ▲교육과정 소개 ▲학교생활 꿀팁 영상 ▲질의응답 ▲우수 졸업생 사회생활 알려주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비 신입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호심서프라이즈 퀴즈대회 등도 마련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구 대인동, 싹 팽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문의. 010-3605-5000